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 | |
|----|---------------------|
| 차수 | 4차 정기 |
| 일시 | 18. 1. 2 15 : 00 |
| 장소 | 총학생회실 |

참석확인 (11/13)

| 간호 | 경경 | 공대 | 사범 | 사과 | 약학 | 예술 | 인문 | 의학 | 자연 | 동연 | 부총 | 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 안건

1. 총학생회 성 평등·인권 교육

: 금요일 총학생회 성 평등·인권 교육 진행. 총학생회 집행부 중 전체의 절반 참여. 미참여 집행부를 포함한 총학생회 구성원 모두 2월 전체학생 대표자 대상 교육에 참여할 것. 1월 말 수요조사/교육 참여 부탁.

2. 등록금 심의위원회

: 목요일(1월 4일) 15시. 저번에 요청했던 자료 받아 논의한 이후 정리, 특방에 올릴 것.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말씀해주시면 요청할 것. 회의 전까지 총에게 말씀 부탁.

□ 논의 안건

1. 2018년 리더스 포럼

-일정: 1월 29~31일, 장소는 단양 대명리조트. 이번 주 학생처 답사 예정. 총 참여인원 210명으로 10명 응원단, 50명 안성 캠퍼스, 150명 서울 캠퍼스 인원. 총학생회 총 20~25명 참여. 각 단과대학 별로 125~130명 나누어 참여하게 됨. 각 단과대학별 대표자(학생회장단, 학과 학년대표 등) 참여자 명단 취합하여 제출 요망. 보통 총학생회장단+총학 국장단, 단과대 학생회, 학과는 학과 대표자 참여로 진행.

-다음 주 월요일(1월 8일)까지 단체 카톡방에 대표자 인원만 파악, 명수만 올려주세요!

2. 총장 재임용 관련 성명서 보류

:재임용 관련 단과대학별 입장

-인문대학: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내용 중,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캠퍼스를 지으려고 한 내용이 발견. 광명병원이 이와 비슷한 경우는 아닌지 문의 필요. 현 총장 선출 제도가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동의하는 부분. 우리는 학생의 입장을 공고히 하여 입장을 내세울 주체. 이화여대의 경우 그 반영 퍼센트가 낮다고 해도 총장이 학생을 고려한 공약을 걸고 정책을 시행함. 중앙대학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일 것. 방학 내 내용을 준비하고 배포, 개강 후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인 학생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도해야 함. 민주적인 학생사회 수립을 위해 현재 교수협의회가 주장하듯 2월 내 민주적 총장 선출제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

-자연과학대학: 추가적으로 절차적이 아닌,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번 연임에 대한 총장의 입장을 듣고 싶음. 또한 자료 요청과는 별개로, 민주적이지 못한 학내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시급. 중운위가 낸 의견이 잘못 인용될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학생사회가 현 상황에 암묵적으로 동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발표 유무에 상관없이 여러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현재 중운위 입장 발표 시점에 있어서 논란이 있으나, 시기와 상관없이 입장 발표는 필요. 모든 대표자들은 교협 사태 등을 겪으며 현 상황이 비민주적이고 부도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정책 시행에 대해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이사회 지명 방식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함.

-사회과학대학: 기존 회의 진행 안처럼 민주적인 학생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한 성명서는 내도된다고 생각. 현재 총장 임명제는 분명히 비민주적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알려야 함. 두 달이라는 교협 제시 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해야 함. 총장 발언 중 학생 등의 대다수의 학내 구성원이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사회가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 있었음. 교협에 편승하여 가는 것이 아닌, 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 필요. 그러나 방학 기간 내 중앙운영위원회는 현재 총장 선출 등 학내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해 알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 또한 성명서는 시기성이 중요함. 방학부터 학생사회의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함. 성명서를 냈을 때 특정 입장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우려스러우나 한 쪽의 입장이 아닌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담으면 된다고 생각. 모든 논의의 근본(비민주적인 의사소통 체계)이 같아 내용상의 중복은 어쩔 수 없는 것.

-공과대학: 본부와 교협 면담 이후, 두 집단 간 갈등의 골이 깊음을 느낌. 학내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 학내 민주주의를 내세워 교협이 주장하는 민주적인 총장 선출제(직선제와 같은)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 개강 이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성명서를 내고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또한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중운위의 성명은 2월에 그 실현을 위해 총장 선출 제도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자는 교협의 의견에 흡수될 수 있음. 학생을 위하는 방향으로 학내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필요. 교협의 주장과 같이 두 달 내에 관련 제도가 완벽하게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학내 민주주의의 올바른 설립을 위한 기틀부터 닦아야 하는 시기. 성명 발표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함. 또한 학생회와 학교, 교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 입장 오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

-간호대학: 교수협의회가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인지, 학생회와 격을 같이 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녔는지에 대한 의문. 학생회는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었으므로 학생 자체적인 입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 처음부터 교수협의회와 같이 가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와의 일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약학대학: 총장단과 교협의 갈등 사이 학생이 있다고 생각. 학생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지금 성명을 발표하기에는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 학생총회를 열 수도 없는 상황. 개강 이후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된 이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입장을 발표했다가 학생 사회의 신임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재임용 관련 단과대학별 추가 의견

-공과대학: 앞으로 학생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기반이 되는 것이 학생의 지지이며, 학생문화를 이끄는 측면에서 학생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각 단대에서 학과/단과대학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앎. 이에 더해 학생들이 학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추가되기를 바램. 공대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도입 고려중. 후일 있을 수 있는 학생총회를 위해서라도 이번 행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사회과학대학: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위한 학생의 제언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해야 함. 전공개방모집 제도의 경우, 사회과학대학은 여러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포괄적 전공 제도를 제안/채택하게 될 것. 이와 같이, 학내 구성원 간 지속적 논의를 통해 대다수 구성원이 만족하는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총장 선출 방법 논의에 있어서 학생사회 내 TFT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음.

총학생회장: 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 설립에 학생 의견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학생 의견 수렴 이후 전달, 이후의 논의에 학생대표자가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할 것.

□ 의결 안건

1. 총장 재임용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공포(11단위 참여 중 10단위 찬성, **가결**)

- 내용

1. 현 총장 선출이 임명제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비민주적임에 대해 학생사회에 알림
2. 2월 내 총장 재선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
3.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 의견을 수렴, 비민주적 총장 선출제도 개선의 동의할 경우(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원할 경우) 법인과 총장단은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요구.
4. 개선 목표 시점은 2020년도. 현 총장 임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 기타 안건

1. 중앙운영위원회 워크숍

-일정: 1월 11일(목)~12일(금). 중앙운영위원회 중 총 18명 참여. 장소는 강원도와 강릉 중 한 곳.

2. 총학생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존 59대에서 사용하던 플러스친구를 인계받음. 차후 지속적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공식 계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사 협의, 명칭 변경 등 조치 완료. 1월 3일 옐로아이디 정상 운용 공지 올라갈 것.

3. 생리대 대여사업 실시 대학

-자연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진행 중. 사회과학대학은 생리대 관련 사태로 인해 보류 논의 진행 중. 따로 실시 예정 단과대학은 없음. 공과대학 해우소 의견 중 생리대 자판기 설치 요청 있었음.

4. 사회과학대학 발의 - 새터 관련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진행하며 채식주의자를 고려한 식단 준비 계획 있는 단위 있으신지: 인문대학.

5. 단과대학별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일정/장소

-공과대학: 3/2~3/4. 오투리조트 예정, 이외 추가 탐색 중.

-인문대학: 3/2~3/4. 충북 괴산 보람원

-자연과학대학: 2/23~2/25. 충북 제천 청소년수련원

-약학대학: 2/27~3/1 청평 컨싱턴리조트

-경영경제대학: 3/2~3/4 오크밸리

-사범대학: 2/25~2/27 양평 대명리조트

-간호대학: 3/2~3/4 장소 미정

-사회과학대학: 3/9~3/11 평창 한화리조트

6. 동아리연합회 발의 - 동아리 공연 관련

: 각 단과대학별 새내기 새로 배움터 중앙동아리 공연 내용 확정된 부분 있으면 동아리연합회에 빠르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음 중앙운영위원회(1월 8일 월요일 15시) 기타 안건: 새내기 새로 배움터 내 학생 의식 고취 관련 교육/성 평등·인권 교육 관련 내용 논의.